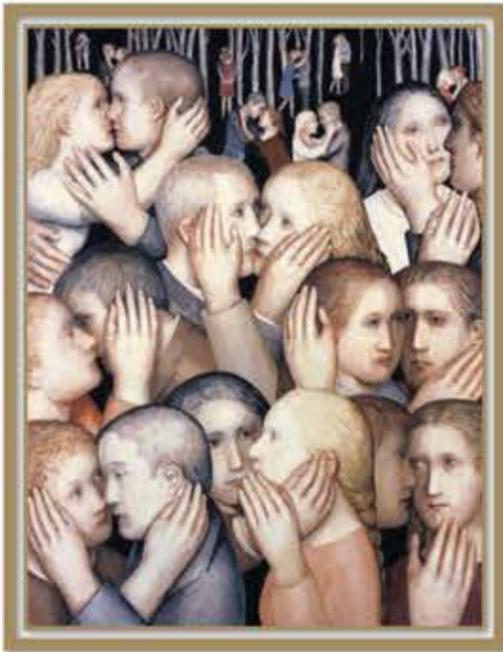


■ 그림 여행



‘...사랑의 정원으로 나는 가보았네’ No. 1
(‘...I Went into the Garden of Love’ No. 1 c. 2003)

에블린 윌리엄스 (Evelyn Williams 1929 - 2012)
(캔버스에 유채 153.6 cm x 122.5 cm 웨일스 국립 미술관)

그림의 제목으로 인용한 시 ‘사랑의 정원’은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이다. 어릴 때 놀던 정원으로 가 보니 꽃 대신 죽음을, 기쁨 대신 억압과 공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며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며 순수

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슬픔을 노래한 시다.

영국 화가 에블린 윌리엄스가 그린 이 그림에서 ‘사랑의 정원’은 어떤 곳인가? 이곳의 정원은 캄캄하다. 어둠 속에 앙상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검은 숲을 배경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인간의 군상은 모두 짝을 이루어 포옹 내지 입맞춤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은 사랑의 기쁨을 나타낸 것일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의 표현인 포옹과 입맞춤이 쓸쓸하고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서로를 끌어안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각자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 공허한 눈길을 주고 있다. 그 대신 얼굴보다 크게 강조된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다. 상대가 누군지 몰라서, 상대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상대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눈 먼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더듬는 듯하다.

사랑의 정원으로 가 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사랑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슬픔과 고독이다. 수많은 커플을 겹쳐지듯 그려서 소외와 고립감이 무한대로 증폭되고 있다. 끌어안은 상대방의 얼굴 저쪽으로 텅빈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크게 뜬 눈에서는 금세라도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릴 것만 같다.

에블린 윌리엄스는 자신의 일기를 통해 ‘인간의 조건과 관계 속에 파생되는 괴로움’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고통받는 인간들의 짐을 털어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사랑의 정원’이 이런 곳이라고 표현한 그녀의 그림은 사랑에 대한 매우 서글프고 체념적인 해석이다.

김 동백

스페셜

한방침 + 물리치료

Acupuncture + Massage

10번 패키지 구입시 1번 Free

2022 Top AWARD

“재활 통증 전문”

2022 Top Doctors of Excellence Acupuncturist에 선정된 여성 한의사가 세심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침

부항

뜸

보약

공진단 선물용
상품권도 판매합니다.

- *쌍화탕
- *녹용대보탕
- *심전대보탕
- *각종 한방 TEA

각종 보험, 통증, 한약
교통사고, 건강상담 환영, 메디케어
메디케어 (Advantage)

푸른솔한의원
PINETREE ACUPUNCTURE

월 - 금 9:00 AM ~ 6:00 PM 토 10 AM ~ 1 PM 일 Closed

714.736.0208

2619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동안 시술 전문 벨라스킨메디스파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다수의 최신 고성능 레이저 보유

미국 최대 레이저장비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진 레이저 최다 보유

FDA 승인받은 VIOLA 실리프팅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BELLASKIN
MEDI SPA

보톡스 / 필러 / 실리프팅 / 콜라겐 / 스킨부스터
레이저 / 여드름 / 바다 / 스킨케어

예약문의: **714. 522. 8275 / 213. 808. 4398**
5730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www.bellaskinmedispa.com